

여수, ‘임산부의 날’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 개최

10월 10~24일 걷기 챌린지… 23일 온 가족이 즐기는 음악공연 마련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10월 10일 제21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응원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임산부의 날’은 임신 기간 10개월을 의미하는 ‘10’과 풍요를 상징하는 10월의 ‘10’을 합쳐 10월 10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임산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이번 행사는 임산부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걷기 챌린지와 가족 참여형 문화공연, 체험행사 등 다양하게 구성했다.

먼저 ‘임산부 배려 걷기 챌린지’는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모바일 앱 ‘워크온’과 연계해 운영한다. 여수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워크온’ 실명 가입 후 해당 챌린지에 참여해 5만 보 달성 후 응모

를 하면 추첨으로 40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이어 10월 23일 오후 2시 여수문화홀에서는 ‘패밀리 팝페라 콘서트’가 열린다.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하는 관객 참여형 음악콘서트로 온 가족이 함께 음악을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또한 가족 캐리커처, 임산부 체험, 포토존 및 기념사진 촬영, 스트레칭 지수 검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참여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한다. 콘서트 참여 신청은 10월 7일부터 22일까지 여수시 OK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1-659-4263, 42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임신과 출산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계

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이를 품고 키워가는 모든 순간이 조금 더 행복하고 든든할 수 있도록 시민의 삶에 가까운 모자보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임산부와 가족들이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임산부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의미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또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필요한 건강정보와 지원사업을 알리며 실질적인 도움도 제공한다.

시는 앞으로도 임산부와 출산가정의 건강한 일상을 돕기 위한 다양한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출산 문화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패밀리 팝페라 콘서트 포스터

/여수 시청 제공

/이유빈 기자

순천시 낙안면, ‘찾아가는 경로당’ 현장소통 강화

순천시 낙안면(면장 이태문)은 9월 한 달간 관내 경로당 42개소를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의 애로사항과 생활 속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확인·처리하는 ‘매월 찾아가는 경로당’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매월 찾아가는 경로당’은 면장이 직접 경로당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도로·교통·가로등·환경·시설물 등 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확인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시책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총 2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으며, 10건은 처리를 완료하고 11건은 관련 부서 협의 및 사업계획 등을 검토 중이다.

이태문 낙안면장은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직접 찾아가 확인하고 해결하는 것이 현장행정의 기본”이라며 “처리 중인 건의사항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 ‘2026 광양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개최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오는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광양예술창고와 365센터 일원에서 ‘낯선 존재와 소통하는 법(How to communicate with Alien beings)’을 주제로 「2026 광양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페스티벌은 서로 다른 존재와 감각, 기술이 예술을 매개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과정을 다양한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풀어낸다. ‘광양-린츠 미디어아트 익스체인지 그랜트’ 수상작을 비롯해 광양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캠퍼스 프로그램, 지역 청년작가 작품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광양시와 오스트리아 린츠시는 2024년부터 미디어아트 분야에서 교류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광양-

린츠 미디어아트 익스체인지 그랜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와 한국 측 공동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한국의 소보람 작가와 오스트리아의 하이케 칼텐브루너 작가를 최종 선정했으며, 두 작가의 작품을 광양예술창고에서 전시한다.

올해도 본격적인 페스티벌에 앞서 지난 9월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축제인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기간에 ‘광양-린츠 미디어아트 네트워크’ 사전 행사를 열었다. 그랜트작가 수여식과 수상작 전시,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으며, 양도시 간 미디어아트 교류와 협력 관계를 다졌다. 이러한 교류는 이번 광양 본행사로 이어져 광양 미디어아트의 국제교류 기반을 넓힐 예정이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공동체 대외 평가 쾌거‘돌봄도 이웃 사랑도 으뜸’

곡성군이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이웃 사랑 실천 분야에서 연이어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곁경사’를 맞았다.

전라남도도가 주관한 ‘2026년 전남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평가에서 곡성군 죽곡면 주민자치회가 행복돌봄 분야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2026 좋은이웃 밝은동네’ 시상식에서 죽곡면 삼태마을 정재영 이장이 ‘좋은이웃’ 분야 으뜸상을 수상했다.

전남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죽곡면 주민자치회는 도내 583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주민 참여도, 사업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민이 주도해 마을 내 돌봄 공백을 메우고 따뜻한 연대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 자치 체계를 구

축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특별시장상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00만 원을 확보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28일 여수시 엑스포디지털갤러리에서 열리는 ‘20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BC광주방송이 주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후원하는 ‘2026 좋은이웃 밝은동네’ 시상식에서는 죽곡면 삼태마을 정재영 이장이 ‘좋은이웃’ 분야 으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 이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에 앞장서고 주민 화합과 마을 자치를 이끌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방송문화재단 이사장 표창과 상금 2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영규 기자

구례, 세계 철인들의 도전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지난 4일 구례군 일원에서 열린 국제철인3종경기 ‘2026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대회’가 국내외 선수들의 열정과 군민들의 응원, 자원봉사자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는 39개국에서 1,165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대회 안전을 위해 1,5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구례군청, 구례경찰서, 구례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힘을 모았다. 대회는 새벽 7시 지리산호수에서 수영을 시작으로 수영 3.8km, 사이클 180km, 마라톤 42.2km 등 총 226km의 풀코스로 진행됐다. 선수들은 17시간의 제한 시간 안에 극한의 레이스를 이어가며 자신의 한계에 도전했다.

특히 선수들은 지리산과 섬진강을 배경으로 펼쳐진 구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치열한 레이스를

펼치며 대회의 열기를 더했다.남자부에서는 중국의 Fenghang Wu 선수가 8시간 46분, 여자부에서는 오스트리아의 Joelly Ines 선수가 9시간 29분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날 총 999명의 선수가 226km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완주했다.

대회 다음 날인 5일에는 시상식과 함께 ‘2027 아이언맨 월드 챔피언십’ 출전권 수여식도 열렸다. 상위권 완주자들에게는 하와이에서 열리는 세계 챔피언십 출전권 34장이 주어졌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앞으로도 구례의 아름다운 자연과 스포츠를 연계해 국내외 사람들이 찾고 싶은 스포츠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선섭 기자

